스마일수술 광주 첫 도입…신 치료 기술 선두주자 우뚝

호남 최초 수술 5만례…안내렌즈삽입술 3년 연속 베스트 ICL센터
카탈리스 백내장 호남 첫 시도…광주 최초 젭토 백내장 수술 도입
노안백내장수술, 리사트리 다초점 인공수정체 5000례 인증

김재봉 대표원장

스마일라식은 2002년 독일 칼자이스(Zeiss)에서 개발된 라섹, 라식을 뒤따르는 제 3세대 시력교정술이다. 2012년 처음 한국에 도입된 후 현재 10년의 역사가 쌓였다.

신세계안과는 2013년 스마일수술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해 최근까지 호남 최초로 수술 건수 5만례를 달성했다.

스마일 수술은 라식처럼 각막 절편을 만들거나, 라섹처럼 각막 상피를 벗기지 않고 각막 실질만을 분리해 1~2mm 최소절개로 교정하는 최첨단 수술 방법이다.

특수 레이저가 각막 겉면을 유지한 채 내부 실질만을 절제, 분리한 뒤 약 2mm 최소 절개를 통해 포켓 형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의료진의 수술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해 휴가를 내지 않아도 수술에서 회복까지 부담이 없다. 특히 안구건조증이나 빛번짐, 통증이 거의 없는 라식·라섹의 장점만을 취합한 수술 방법이다.

신세계안과는 다양한 수술경험을 인정받아 장비제조사인 독일 칼자이스사로부터 전국최초로 'LEADING SMILE CENTER'와 호남 최초로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신세계안과는 고가의 스마일수술 장비인 비쥬맥스(VISUMAX)를 지금까지 총 5대를 구입, 노후화된 2대는 폐기후 남은 3대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 지역 최초로 시작한 ICL수술(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렌즈삽입)이 지난 2월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술횟수를 기록해 3년 연속 베스트 ICL센터로 선정 및 지역에서 유일하게 베스트 ICL센터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ICL 및 알티산, 알티플렉스 등 7가지의 렌즈삽입술이 가능한 권위자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표원장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ICL 수술을 기록해 전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7층인 안과 건물을 진료 분야별로 나누어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들에게 획일화된 치료방법이 아닌 다양한 치료방법을 제공해 선택형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는 칼로만 하던 백내장수술을 2015년 최첨단 펨토세컨드 레이저를 도입한 카탈리스 백내장 수술을 호남 최초 시도했으며, 2018년에는 광주 최초 젭토 백내장 수술 방법을 도입했다.

또한 호남 최초 시너지 다초점렌즈를 도입해 현재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보유, 환자 눈 상태에 맞는 적합한 렌즈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호남지역 최초로 렌즈 제조업체인 독일 칼자이스(Carl zeiss) 사로부터 노안·백내장수술에 쓰이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리사트리(Lisa tri)렌즈 5000례 시술 인증서를 받았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 기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더불어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신세계안과는 ICL수술(2002년)·스마일수술(2013년)·카탈리스 백내장 수술(2015년) 등 선진 수술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한 안과의 명가이다. 김재봉 원장이 먼거리와 중간거리·근거리 등 세가지 초점에 우수한 시력을 제공해주는 심포니렌즈 시술을 하고 있다.

"의술 앞서 인술"…교육·문화·의료 나눔 실천

광주도시철도와 취약계층 백내장 수술 협약
사회복지모금회 1억·적십자사 1억 통큰 기부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 5000만원 기탁
'지역작가 초대전' '빛창공모전' 등 나눔문화 앞장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신세계안과를 운영하는 김재봉 대표원장은 지역의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평소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해온 까닭이다.

신세계안과는 올해 3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취약계층 무료 백내장 수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지역 주민 중 백내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총 10안(眼)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선행은 수년전부터 꾸준히 지속했다. 2020년에는 눈이 불편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사시수술 및 시력교정술을 지원했다.

특히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1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에 각1억원씩 총 2억원의 통큰 기부를 통해 광주시 아너소사이어티,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대표원장은 2020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국민 포장은 대통령 표창보다 높은 상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6년부터는 병무청과 함께하는 '슈퍼 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 현역 입대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무료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14명을 현역으로 입대시켰다.

또한 해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도시철도공사 금남로 4가역, 서구노인복지관 등 의료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무료 안과 진료 및 의료봉사를 진행해 왔다.

이밖에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기부를 통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 7월 도시철도 공사와 광주 상무역 4번 출구에 '사랑의 건강계단'을 조성해 시민 한 명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10원씩 적립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200여 만명의 시민들이 건강계단을 이용해 약 3500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돼 지역의 소외 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됐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디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해 지역과 후배 양성에도 기여했다.

현재 신세계안과 원내에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 작가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안젤 오테로, 알렉스 카츠, 줄리 커티스, 이건용, 이소배, 이배, 양혜규 등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개최한 '빛창공모전'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문학을 창작하고 접할 수 있게 했다. 빛창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의 전국민이 참여 가능한 시 공모전으로 20~30자 내외의 글을 공모해 당선작에 한해 신세계안과 외벽 및 광주지하철 역사에 전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면의 나눔 문화에 앞장선 김재봉 원장은 "20여년 간 의사로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해야할지 항상 고민했다"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기본이며, 지역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공헌 활동을 꾸준히 찾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봉 대표원장은 지난 2009년 광주 신세계안과를 개원한 이후 2016~2020년까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5년 연속 차지했으며, 스마일수술을 광주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5만례를 시술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대표안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의술에 앞서 인술'을 표방한 신세계안과는 의료는 물론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부와 봉사로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각 1억원을 기부해 아너소이어티와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 등 개원이후 기부를 쉬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저소득층 안과 검진 지원 및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 장면.

광주신세계안과 빌딩은 개원 당시 최상층에 눈모양이 형상화돼 있어 '눈모양' 빌딩으로 화제를 모았다. 빌딩 전면에는 사시사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한 아름다운 싯구가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돼 걸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